



담벼락 낙서도 훌륭한 작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스타가 되고 싶은가요? 스타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최근 '강남스타일'을 불러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가수 사이처럼 어딜 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와글와글 몰려드는 것이 스타의 가장 큰 특징일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미국 출신 화가 장-미셸 바스키아(Basquiat)는 이런 스타가 되기를 바랐어요. 그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열일곱 살 이후 나는 늘 스타를 꿈꿨다. 찰리 파커(★), 지미 헨드릭스(★) 같은 우상들을 항상 생각하며 살았고, 그들이 유명해진 방식에 낭만을 느꼈다.”

소원대로 그는 스타가 되었고, 곧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림 1을 보세요. 초록색 바탕에 흑인 친구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 위로 마치 종이를 뜯어 붙인 듯 피엠퍼엠퍼 낙서가 되어 있어요. 뒤로 보이는 그림은 서툰 솜씨로 성의 없이 끼적인 것 같이 보여요. 별 뜻이 담겨 있지 않을 것만 같은 많은 글자가 여기 저기 적혀 있습니다.

그림은 캔버스나 스케치북이 아니라 담벼락에 그려져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작가의 그림이라기보단 어린아이가 그려놓은 것 같네요. 이런 묘한 그림으로 어떻게 스타가 되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가 슬슬 궁금해지는군요.

바스키아는 1960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프랑스·스페인 출신이었죠.

바스키아는 어릴 적부터 영어뿐 아니라 부모님의 모국어인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에 능통했습니다. 10대가 되어서는 시와 신화, 역사 등에 관심이 많았어요. 고등학생 때는 뉴욕 맨해튼 뒷골목에서 친구들과 스프레이에 담긴 페인트를 써서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위에는 꼭 SAMO(멍청이란 뜻의 미국 속어)라는 서명을 남겼죠. 낙서를 하다가 경찰이 나타나면 쏠살같이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바스키아는 '낙서 화가' 또는 '거리의 예술가'로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바스키아가 시내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를 알아보고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바스키아는 셔츠·티셔츠·가방·담뱃갑 등에 그림을 그려주었지요.

바스키아의 캔버스는 담벼락뿐만이 아니었어요. 열차, 화장실 문 등 공간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예술을 통해 사람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해하기 어렵고, 평범한 사람들이 접하기 힘들 만큼 고급이고, 생활에서 동떨어져 있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스키아는 여러 유명 국제 미술 전시회에서 최연소 미술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흑인 피카소'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습니다.

**‘낙서 화가’ 장-미셸 바스키아
생활과 밀접해야 예술이라 생각
담벼락·가방 어디든 종이 삼아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렸죠
원시인도 동굴에 낙서 남겨
옛날 생활모습 볼 수 있어요**

그가 그린 그림의 분위기는 밝지만은 않았습니. 그림 2를 보세요. 해골처럼 보이는 인물이 몸통에 온통 자신의 오장육부(★)를 드러낸 채 피를 흘리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어린애가 그린 듯 순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하게 위협적입니다.

이 그림은 바스키아의 어린 시절의 기억과 관련이 있어요. 일곱 살에 바스키아는 교통사고를 당해 심하게 다쳐서 큰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때 처음으로 그는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지요. 입원한 동안 어머니가 선물해 준 해부학 책을 열심히 보았는데, 바스키아의 그림 속 해골 이미지들은 아마도 그 시절의 충격적인 경험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사람을 좋아해 주로 사람을 그렸지만, 그의 작품 속 사람들은 대체로 우아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듬어진 아름다움이 아닌 자연스러움을 추구한 모양이에요.

바스키아는 반드시 솜씨 좋게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



그림 1 '데스몬드' 장-미셸 바스키아, 1984.



그림 2 '무제' 장-미셸 바스키아,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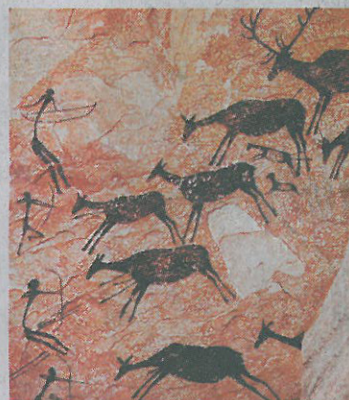


그림 3 '사슴 사냥 장면을 그린 암벽화' 스페인 카발스 지역, BC 5000~2000년.

어요. 세련되게 그리기보다는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지요. 그림 3을 볼까요?

기원전 스페인에서 그린 벽화입니다. 그 옛날 원시인들이 동굴 벽에 낙서한 흔적이군요. 평소 그들이 사슴 사냥을 하는 장면을 그대로 그린 것이지만,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당시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지요. 이처럼 낙서란 가장 오래된 미술이면서, 일상을 담아내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지요.

미술 작품에는 대체로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별 의미 없이 손가는 대로 만들어내는 작품들도 있지요. 작가가 특별한 의미를 담아 그린 작품이라도, 완성된 그림에서 보는 사람이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작품도 많습니다.

바스키아의 작품이 매력적인 이유는 한순간의 머릿속을 지나쳤던 이미지와 글자들이 작품 위에 있는 그대로 펼쳐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바스키아의 그림을 마주한 사람들도 마치 그의 생각과 마음

이 담겨 있는 일기나 마음속 지도를 엿보는 듯한 기분을 느끼지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유명해지고 싶었던 바스키아는 안타깝게도 1988년 8월 스물여덟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생애를 눈부시게 살다 갔지요. 하지만 죽고 난 후에도 그의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바스키아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영원한 스타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

니다. 국제갤러리 2관 (02)735-8449

이주는 교수·성신여대(미술교육) ★찰리 파커(Parker): 미국의 재즈 음악가. 색소폰 연주자 및 작곡가로 이름을 날렸다.

★지미 헨드릭스(Hendrix): 미국의 유명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가수.

★오장육부(五臟六腑): 인간의 몸속 장기 전체를 통틀어 표현할 때 하는 말.

who? 시리즈 (총 60권)

GS SHOP 방송!

방송 시간에만 특가 대비 60% 할인!

■구성: 한글판 60권 + 영문판 5권

30분만에 매진! 폭발적인 반응!

2월 21일(목) 방송
오전 9:20 ~ 10:20

한국 출판 최초 미국 초등학교 부교재 채택

문의 : 070-7606-7422